

韓国語の権威、野間秀樹教授編著

『韓国・朝鮮の知を読む』、日本でパピルス賞受賞

December 03, 2014 ● 『朝日新聞』韓国語版

桜井 泉

日本を代表する言語学者である野間秀樹・明治学院大学客員教授が編者となった『韓国・朝鮮の知を読む』が、関記念財団主催の今年のパピルス賞に決定した。パピルス賞は、学問と社会を繋ぐ役割を果たした出版物に、その業績を称えて授与される賞である。この本は日本と韓国の参加、学者、言論人など、約140名が韓国・朝鮮の知に近づくための5冊の書籍を推薦し、本の概要と推薦理由を述べる内容である。11月14日に授賞式があった。

野間教授は東京外国語大学教授を歴任、『ハングルの誕生』という著書で知られた韓国語研究の権威である。受賞について「この本を通じて韓国の知について論じうる基礎が作られたと自負している。その点が評価されたようで、非常に嬉しい」と喜びをあらわにした。本は、金承福（キム・スンボク）氏が社長の任に当たっている、東京の出版社クオン（CUON）で本年2月に出版された。韓国の知について知りうる本であれば、著者が韓国人であろうと日本人であろうと、また韓国語で書かれていても、日本語で書かれたものであっても、それぞれの筆者は隔てなく推挙できる。野間教授は「日本でヨーロッパと米国の知に関する書籍の推薦を依頼すれば、5冊くらいは誰でもたちどころに挙げうるだろう」と言う。ところが韓国・朝鮮の知の場合にはそうたやすいことではない。日本で韓国の知に関する翻訳書はそれなりに出ているが、絶版となっているものも多いのだという。野間教授はこうした点について、「日本語圏の人々は韓国・朝鮮の知について知ろうとしなかった」という現実があり、これは「隣国の人々と、知について共に悩み、考え、創り上げていく過程がなかったため」と述べる。ここには植民地支配という暗い過去があり、韓国について「傲慢な姿勢」をとっていたことも、原因だと指摘する。

執筆陣は日本語圏94名、韓国語圏46名である。小説家・申京淑（シン・ギョンスク）、英文学者であり評論家の白樂晴（ペク・ナクチョン）、文芸評論家である金炳翼（キム・ビョンイク）、『火山島』で知られた在日作家・金石範

(キム・ソクポム)、歴史学者・和田春樹などの他にも、ロシア文学者・亀山郁夫、フランス文学者・守中高明など、韓国を専門としていない知識人たちも含まれており、スペクトルも幅広い。当然のこと、推薦された本も多彩である。

韓国でベストセラーとなった兪弘濬(ユ・ホンジュン)の『私の文化遺産踏査記』、朴景利(パク・キョンニ)の『土地』などは、言うまでもない。日本人にも広く愛されている尹東柱(ユン・ドンジュ)の詩集『空と風と星と詩』、反体制詩人として知られた金芝河(キム・ジハ)の作品もある。一方、きらめく意外な小品たちにも出会うことができる。そうした作品を探すのも、また一つの楽しみだろう。

今の北朝鮮にはどのような知があるだろうか。残念ながらこの本を通してはほとんど知ることができない。いくら過酷な独裁体制のもとで言論と文化が抑圧されているとはいえ、そこには〈知〉があり、権力に抵抗し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それが目に見えない形であるがゆえに、私たちがまだ知らないだけなのかもしれない。

10月には韓国語版『韓国の知を読む』(ウィズダム・ハウス)も出版された。



野間秀樹教授と金承福社長(右)。노마 히데키 교수와 김승복 사장(오른쪽).



韓国語版『韓国・朝鮮の知を読む』(ウィズダム・ハウス)。 한국어판 ‘한국의 지를 읽다’ (위즈덤하우스).

●아사히신문 한국어판

한국어 권위자, 노마 히데키 교수 편저

‘한국의 지를 읽다’ 日 파피루스상 수상

December 03, 2014

사쿠라이 이즈미=櫻井泉

일본을 대표하는 언어학자인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대학교 특임 교수가 편집자를 맡은 ‘한국의 지(지)를 읽다’(원제: 韓国・朝鮮の知を読む)가 세키(關)기념재단이 주최하는 올해의 파피루스상으로 결정됐다. 파피루스상은 학문과 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출판물에 그 업적을 기려 수여되는 상이다. 이 책은 일본과 한국의 작가, 학자, 언론인 등, 약 140명이 한국·조선의 지에 가까워지기 위한 5권의 서적을 추천하고 책의 개요와 추천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11월 14일에 수상식이 있었다.

노마 교수는 도쿄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한글의 탄생’이라는 저서로 알려진 한국어 연구의 권위자다. 수상에 대해 “이 책을 통해 한국의 지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졌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 점이 평가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기쁨을 표현했다. 책은 김승복 씨가 사장을 맡고 있는 도쿄의 출판사 쿠온(CUON)에서 올해 2월 출판됐다.

각 필자는 한국의 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책이라면 저자가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또한 한국어로 된 것이든 일본어로 된 것이든 가리지 않고 추천할

수 있었다. 노마 교수는 “일본에서 유럽과 미국의 지에 관한 서적을 추천해 달라고 말하면 5권 정도는 누구라도 금방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조선의 지의 경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일본에서 한국의 지에 관한 번역물은 그러저럭 나오고 있지만 절판된 것도 많다고 한다. 노마 씨는 이런 점에 대해 “일본어권의 사람들은 한국·조선의 지에 대해 알고도 하지 않았다”는 현실이 있으며, 이는 “이웃국가의 사람들과 지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식민지 지배라는 어두운 과거가 있어 한국에 대해 ‘오만한 자세’를 취했던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필자진은 일본어권 94명, 한국어권 46명이다. 소설가 신경숙, 영문학자이자 평론가인 백낙청, 문예평론가인 김병익, ‘화산도’로 알려진 재일작가 김석범,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등 외에도 러시아 문학자 가메야마 이쿠오(龜山郁夫), 프랑스 문학자 모리나카 다카야키(守中高明) 등 한국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지식인들도 포함돼 있어 스펙트럼이 폭넓다. 당연히 추천한 책들도 다채롭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박경리의 ‘토지’ 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일본인에게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반체제시인으로 알려진 김지하의 작품도 있다. 그러나 반짝반짝 빛나는 의외의 소품(小品)들도 만날 수 있다. 그런 작품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지금의 북한에는 어떠한 지가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이 책을 통해서도 거의 알 수가 없다. 아무리 가혹한 독재체제 아래서 언론과 문화가 억압받고 있다고 해도, 그곳에는 ‘지’가 있으며 권력에 저항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이기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10 월에는 한국어판 ‘한국의 知를 읽다’(위즈덤하우스)도 출판됐다.

사쿠라이 이즈미=櫻井泉

http://asahikorean.com/article/asia_now/culture/AJ201412030001